

자소서 '정체성' 항목 강화 ... '소수인종 우대' 대안되나



▲ 하버드 대학 입학 방문자 센터 표지판. 사진=Reuters/ft.com

다트머스대는 "당신이 성장한 환경과 당신이 받은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학들의 질문은 합법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리

면서도 판결문에 "지원자의 전체적인 삶이라는 맥락에서 인종이 언급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하버드대 등이 요구한 '인생 경험' 등에 대한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을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는 것이다.

입시 전문 변호사인 이산 바바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라며 "학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헌 판결을 끌어낸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즉각 대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하버드대 등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지원자의 인종을 밝히도록 유도하는 속임수"라고 반발했다.

일부 대학들은 자기소개서 질문 변경으로 인한 역풍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현재의 당신을 만든 정체성과 인생 경험을 소개하라'는 질문을 한 존스 홉킨스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종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모든 배경을 기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하버드대 등 미국의 주요 대학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서 '정체성'과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 선발 때 적용해 온 소수인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금지된 이후 교내 인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하버드대 등 미국 20여개 주요 대학이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예년과 다른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지원자들은 지난해까지는 1개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측이 준비한 5개의 질문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각각 내야 한다.

'현재의 당신을 만든 인생 경험이 앞으로 하버드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설명하라'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인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원자 판단에 따라서는 인종 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소개도 가능한 질문이다.

듀크대의 질문은 하버드대보다 더 직접적이다. 듀크대는 지원자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주문했다.

'능력' 넘는 수업 선택 말아야

고교 재학 중 유독 한 분야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이 경우 가장 쉬운 해결책은 노력해도 최고의 성적을



▲ 수업 난이도는 '능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진=shutterstock

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클래스를 듣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나의 강점과 능력에 비추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수업들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러나 레귤러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어려운 수업에서 'C'를 받는 것보다는 낫다. 어려운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수업들도 성적이 부진해질 수 있다.

만약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선택했지만 하다 보니 고전할 경우 교사나 카운슬러, 친구,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부모는 튜터를 고용해줄 수 있고, 친구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도와주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방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미팅을 잡을 수 있다. 아무도 내가 혼자 고전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칸 아카데미'와 같은 온라인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또한 스터디 그룹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나처럼 특정 과목이나 분야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서 조언을 듣는 것도 좋다.

현실적인 대학 지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리스트를 정할 때는 나의 강점과 능력에 대해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아이비리그 등 종합랭킹 20위 이내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 분야에서 강력한 성적을 요구한다.

한 분야에서 고전했다고 해서 이런 탑 대학들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최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덜 도전적인 수업으로 대체했다면, 지원 시 불리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합격을 희망한다면 내가 약한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특출나게 뛰어나야 할 것이다.

만약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대학에 가서도 같은 과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과목을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면, 어려움이 배가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선택할 때는 전반적으로 도전적인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스케줄로 전체 성적을 망칠 위험을 피하고 과외 활동이나 인간관계도 함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날말퍼즐 정답						
1영	의	2정			3호	4갑
일		5오	아	6시	스	자
7만	8사			계		9동 기
	분			10추	가	분
	11오	페	12라			서
13우	열		운		14주	15의
시		16초	지	일	17관	욕
18장	탄	지			19객	관 적

수학전문 · 수천명 가르친 경험으로

- 필요할 때만, 배우고 싶을 때만 배우고
- 배운 시간만큼만 그날 그날 Pay 하면 됨
- 1분 ~ 120분 사이로 (1분이든, 28분이든, 43분이든) 배우고
- 배운 시간만큼 Pay 하면 됨

- 어떤 과목이든 (Alg 1, Geom, Alg 2, Trig, Precal, AP Cal)
- 어떤 문제든 99% 보는 즉시
-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심하지 않고
- 단 1초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즉시 가르쳐줌

- 1:1 개인지도 (Fullerton Office에 와서 칠판 강의)
- 급한 Test, 중요한 Test, 어려운 Homework
-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

Fullerton

Buena Park

Since 1994

(213)384-2400

혹시 전화 못 받으면

문자 주십시오